

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
제 1 차 문 화 환 경 위 원 회
2 0 2 3 . 2 . 1 . (수)

「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 : 173
제출일자 : 2023. 1. 20.
회부일자 : 2023. 1. 26.



문 화 환 경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김성태

「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경상북도지사

2. 제안 이유

- 문화관광분야의 유사기능을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하여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(재)문화엑스포를 통합운영하고자 함.
- 두 기관의 통합에 따른 업무, 기능, 조직 및 인력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 내용

- 가.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수행사업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의 운영계획 및 연계사업을 추가함.(안 제20조)
- 나.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추가함(안 제21조의2)
- 다.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사용료 감면 근거를 추가함(안 제27조의2)

4. 참고사항

- 예산수반(비용추계서) : 첨부(붙임)
- 규제심사(법무담당관) : 규제심사 비대상
- 부패영향평가(감사관) : 부패유발요인 없음
- 입법예고기간 : 2022.11.10.~11.30(21일간)
- 관계법령 : 「지방공기업법」

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5. 검토 의견

☐ 본 조례안의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

-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각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2022년 7월 29일 ‘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’을 발표 한 바 있으며,
- 경북도에서도 정부 차원의 지방공공기관 구조혁신 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자체 구조개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.
- 이에, 문화관광분야의 유사기능을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하여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‘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’와 ‘(재)문화엑스포’를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☐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

- 안 제20조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수행사업에 경주세계 문화엑스포 공원의 운영계획 및 연계사업을 추가하여 두

기관의 기능적 관계와 역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 다만, 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제10호를 ‘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운영계획 및 연계사업’에서 ‘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운영 및 연계사업’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<현행 조례>

[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]

제20조(사업)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
1. 관광단지의 개발·조성 및 관리운영, 관련 인프라 시설 확충
2. 문화관광축제·이벤트 등 기획 및 개최,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
3. 문화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
4. 도 단위의 통합 홍보·마케팅 및 관광안내시스템 운영
5.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
6. 관광 관련 연구조사, 문화관광산업 지원 및 컨설팅
7. 회의·전시·컨벤션의 기획·유치 및 홍보
8. 문화관광 관련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
9. 수익사업, 도 및 시·군의 위·수탁사업 등
10.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
11. 그 외 정관으로 정한 사업

- 안 제21조의2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문화엑스포사업 운영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합니다.
- 안 제27조의2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의 사용료 감면 근거를 추가하여 엑스포공원 운영에 따른 사업 연계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부칙 제1조에서 조례를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향후 ‘(재)문화엑스포’의 청산일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.

- 부칙 제2조에서 「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」의 폐지조항을 두었고, 부칙 제3조에서는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에 대한 경과조치사항을 두어 기관통합과 조례시행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.

□ 종합 의견

-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는 경상북도의 역사·문화·자연·생태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 홍보하고 지역관광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,
- 문화와 관광을 아우르는 사업 추진과 국내외 맞춤형 관광 마케팅, 문화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- (재)문화엑스포는 경북 문화발전과 문화엑스포를 통해 경북도를 세계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.
- (재)문화엑스포의 경우, 1998년 9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를 시작으로 24년동안 엑스포 10회 개최¹⁾ 된 후, 2019년 이후 중단, 현재는 엑스포공원 상시개장에만 주력하고 있어 존립목적이 상실²⁾되었고, 방만경영에 대한 문제가 지속

1) 1998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국내 7, 국외 3, 총 10회 개최됨. 이후 핵심사업인 국내외 문화엑스포 개최 사실상 중단.

2) 「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」 제3조(사업) ①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문화엑스포의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
2. 국내·외 문화엑스포 개최
3. 역대 국내·외 문화엑스포 기록물 전시를 위한 기념공원 조성
4.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의 상시개장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운영
5. 제4호의 운영을 위한 전시관, 미술관, 박물관, 영상관, 체험관 건립·운영
6.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 및 건축물 유지관리

적으로 제기³⁾된 바 있습니다.

<표1>최근 5년간 (재)문화엑스포 당기순이익(손실) 및 직원 급여 현황

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당기순이익	-3억9천만원	-35억4천만원	-46억2천만원	4억8천만원	-7천만원
임직원 급여	16억8천만원	14억1천만원	22억3천만원	22억4천만원	25억8천만원

* 임직원 급여: 대표이사, 임원, 사무직(정규직), 임기제, 공무원, 기간제근로자 포함

자료: (재)문화엑스포

<표2>최근 5년간 (재)문화엑스포 전입금 제외 사업 수익 및 사업성 지출 현황

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전입금 제외사업 수익(A)*	9억1천만원	7억1천만원	18억1천만원	13억4천만원	22억원
사업성 지출(B)**	268억원	98억6천만원	195억7천만원	84억3천만원	134억1천만원
실제 지출액 대비 수익(A-B)	-258억9천만원	-91억5천만원	-177억6천만원	-70억9천만원	-112억1천만원

* 전입금 제외 사업 수익: 입장권, 부대시설, 시설임대 사업 등 수익

** 사업성 지출: 임직원 급여, 업무추진비, 홍보비 등

자료: (재)문화엑스포

○ 이에, 문화엑스포의 구조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, 구조개혁의 방향으로

- ① 엑스포자체 경영혁신 방안 마련
- ② 문화관광공사와의 통합
- ③ 지리적 여건 및 지역성 등을 고려한 경주시 이관
- ④ 민간위탁 등이 제시 된 바⁴⁾ 있습니다.

○ 그동안, 경북도의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, 2022년 7월 19일 ‘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(안)’을 통보하고, 실국별 통합 추진 TF팀을 구성하여, 문

7.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3) 제305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,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(2018.11.22.) 등 지적

4) 제334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 구조개혁 추진관련 보고과정 중 의견제시 됨

화, 산업, 교육, 복지, 호국 분야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.

- 이 중 문화분야 구조개혁안인 본 개정조례안과 「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만 의회로 제출(2023.1.20.) 되었습니다.
-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 관련 단체와 도민들의 의견에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문화엑스포와의 통합에 대한 반대의견과 두 기관간 통합 후 재무부실 우려에 대한 대책 및 고용승계 등에 대한 밀도있는 논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.
- 양 기관의 통합은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구조혁신 정책에 부응하고, 문화·관광 분야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며, 대내외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전문성 강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
- 다만, 산업, 교육, 복지, 호국 등 타 분야의 구조개혁의 경우,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청취 및 회의개최 등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장기적 추진을 검토⁵⁾ 중이며, 통합이 공사의 조직 비대화와 효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두 기관간 통합논의를 보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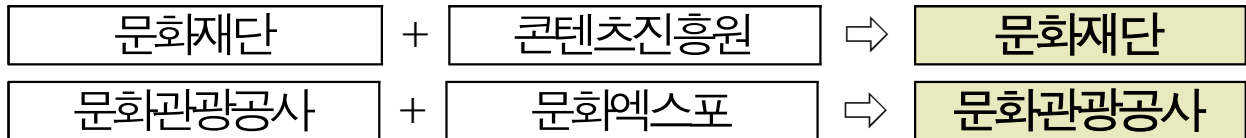
붙임 1. 경북문화관광공사, 문화엑스포 기관 현황

붙임 2.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현황

5)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 분야 중 문화분야를 제외한, 산업분야 1.2차 회의개최(2022.7월 8월) 및 통합방향 설명(2022년 10월), 교육분야, 1차회의(2022년 8월) 이후 중장기추진 결정. 복지분야 1차회의(2022년 8월), 설명회 개최(2022년 9월), 호국분야, 1차회의(2022.8월) 이후 관계기관 및 도의회 반대의견으로 장기검토과제로 전환됨.

구분		경북문화관광공사	(재)문화엑스포
형 태		지방공기업 (영리법인)	지방출자·출연기관 中 출연기관 (비영리재단법인)
설립목적		경북 역사·문화·자연·생태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 홍보하고 지역관광 산업 효율성 제고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 기여	경북 문화발전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문화엑스포를 통해 경북도를 세계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
설 립 일		2012. 6. 7. ※ 최초설립 : '75. 8. 1.(경주관광개발공사)	1996. 12. 21.
주무기관		행정안전부	문화체육관광부
설립자본 금		2,175억원	1억원 (경북도)
대 표 자		사장(김성조)	대표이사(류희림)
소 재 지		경북 경주시 보문로 446	경북 경주시 경감로 614
관 련 법 령	법 률	지방공기업법, 상법	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
	조 례	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	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
조 직 (정원/현원)		2본부 4실 1지사 1사업단 20팀 (163명/153명)	1처 4팀 (43명/41명)
주요시설		경주보문관광단지, 안동문화관광단지, 보문골프장, 안동레이크골프장 등	(부 지) 43필지, 559,426m ² (건축물) 23동(엑스포문화센터 경주타워 등)
예산('22년)		1,944억원	164억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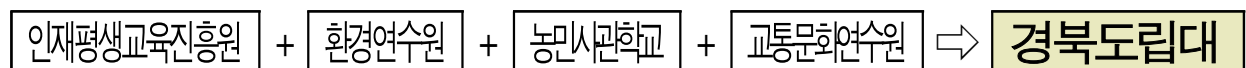
(2023. 1월 현재)

○ **(문화)** 문화재단, 문화관광공사 중심으로 각각 통합

- ▶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공공기관 통합추진 T/F 구성(8. 5.)
- ▶ 경북문화재단, 경북콘텐츠진흥원 통합추진 T/F팀 1차 회의(8. 8.)
- ▶ 제334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문화환경특위 구조개혁(안) 보고(8. 25.)
- ▶ 통합기관 조직운영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(10. 25.)
- ▶ 통합 세부 추진계획 수립(11. 7.)
- ▶ 공공기관 구조개혁(안) 관계기관 설명회 개최(11. 9.)
- ▶ 조례 개정(안) 입법예고(22. 11. 10. ~ 11. 30.)

○ **(산업)** 소재부품 분야 기능통합, 바이오 분야 통합

- ▶ 산업분야 T/F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(8. 8.)
- ▶ T/F 2차 회의(8. 29.)·3차 회의 개최(9. 16.)
- ▶ 연구원 통합방향 산업부(기계항공로봇과) 설명(10. 5.)

○ **(교육)** 경북도립대학교 내 부속기관화

- 경북도립대가 도민 대상 각종 연수(교육) 기능 총괄 수행

⇒ **도립대학교 4년제 전환 계획과 연계 '증장기 추진' 결정**

- ▶ 교육분야 T/F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(8. 4.)

○ **(복지)** 청소년육성재단을 행복재단 내 본부로 통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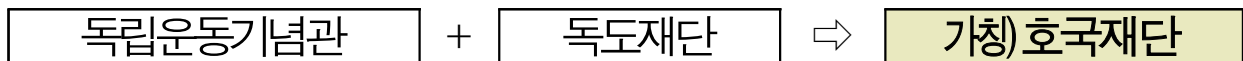
- 유사 서비스(사회복지·보건서비스·청소년복지) 기능 통합

⇒ **최종 추진 여부 확정(1월), 조례 개정 추진(2월)**

- ▶ 복지분야 T/F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(8. 16.)

- ▶ 유관기관 설명회 개최(9. 15.)

○ **(호국)** 독립운동기념관을 중심으로 독도재단 통합



⇒ **기관 상징성 및 상이한 업무성격 고려... '장기 검토'**

⇒ **독도재단 현행 유지, 독립운동기념관 기능 확대* 검토**

- ▶ 국가보훈처 사전검토 요청(7. 25.) - 조건부 동의
- ▶ 관련부서·기관 1차 회의 개최(8.16.) 및 T/F 구성(8. 26.)
- ▶ 안동시의회 통합 반대 의견 제시(8. 22.)
- ▶ 통합 관련 이해관계자(안동시) 회의 개최(8. 24.)
- ▶ 11개 기관(민간단체 6, 연구소 3, 학회 2) 반대의견 제출
- ▶ 도의회(남진복, 한창화, 서석영 의원) 반대의견 제시

T/F 검토(안)-2023. 1월 기준

분 야	대상기관	통합기관명
문 화	문화관광공사	문화관광공사
	문화엑스포	
	문화재단	경북문화재단
	콘텐츠진흥원	
	국학진흥원	국학진흥원
산 업	경북테크노파크	경북테크노파크
	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	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
	바이오산업연구원	경북바이오재단
	환동해산업연구원	
복 지	행복재단	경북행복재단
	청소년육성재단	
	여성정책개발원	여성정책개발원
	의료원(포항, 안동, 김천)	의료원(경북대 위탁운영)
교 육	인재평생교육진흥원(평생교육)	경북도립대학교 ※ 중장기 추진
	환경연수원	
	교통문화연수원	
	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(사관학교)	
호 국	독립운동기념관	경북호국재단 ※ 장기검토
	독도재단	
연구 (별도추진)	대구경북연구원	경북연구원